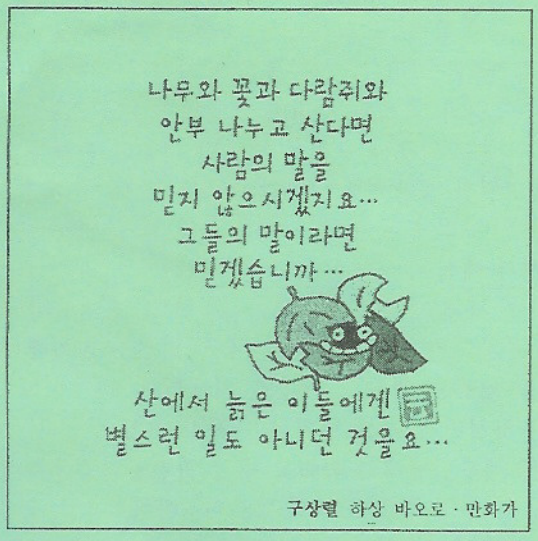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6주일(순교자 성월)
제28권 44호(가해) 2008 · 9 · 28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병인 순교자의 노래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아 무궁화야!
부르자 알렐루야 서럽던 이강산아!
한목숨 내어던진 신앙의 용사들이
끝없는 영광 속에 하늘에 살아있다.
병인년 그 옛날에 구름 재 서릿발에
팔도는 오가작통 피바다 이뤘을 제
묻노니 말하여라. 한강아 대동강아!
순한 양 사학죄인 얼마나 죽었더냐?
어지신 주교신부 웃으며 칼을 받고
겨레의 선열들이 기꺼이 쓰러졌다.
피 꽃을 몸에 피워 천당에 올랐어라.
찰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어라.
척화비 파묻히고 승리가 우뚝한 날
예수님 그 진리를 피로써 알았노라.
후손된 우리들도 진리의 사도되어
죽도록 겨레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故 최민순 신부)

미사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애	오후 2:00 종 강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종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베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 지향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신임순 안나, 제시 로드리게스, 이민찬, 김순성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엘리사벳, 김풍길 바오로
주 일 낮 미사	(연)정진표,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규형 곤잘레스, 이영자 마리아, 반치우 안셀모
	(생)장정숙 크리스티나,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녜스 가정, 신순철 가브리엘, 권순봉 요안나, 오세덕과 오진자 마리아, 주 안나, 차인수 안드레아와 레지나 가정, 이상현 베드로, 최석원 안드레아와 엘리사벳, 박진현 로사, 이유미 율리아, 이유진 대건 안드레아, 이의남 시몬, 이복임 엘리사벳, 신철규 미카엘,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Ezekiel) 18,25-28
화 답 송	⊙불쌍히 여기심을 주여, 돌아보소서. ○주여,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지름길을 가르쳐주소서. 당신은 나를 구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진리안을 걷게 하시고 그 가르치심을 내려주소서.⊙ ○불쌍히 여기심을 주여, 돌아보소서. 영원하신 그 자비를 헤아리소서. 야훼님 어지시오니, 자비하신 그대로 나를 살피주소서.⊙ ○자애롭고 의로우신 주님이오라. 죄인에게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겸손한 자 의를 따라 걷게 하시고, 겸손한 자 당신 도를 배우게 하시나이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1-11<또는 2,1-5>
복 음 환호성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 음	마태오(Matthew) 21,28-32
영성체송	주님,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 말씀에 희망을 두게 하셨으니, 그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이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4	345
봉헌	378	268,178
성체	402	292,302
파견	372	339

간추린 가톨릭 교리

18. 치유의 성사 -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 병자성사의 의미와 효과

병자성사는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주님께서 바라실 경우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지는 성사이다. 질병과 노쇠는 우리 몸과 정신을 약하게 하고 고통을 준다. 동시에 병자는 일상생활에서 격리되어 외롭고 쓸쓸한 상태가 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이럴 때 신자들은 병자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병고를 이겨 내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치유의 은혜를 간구한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더 큰 희망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 병자성사 예식

병자성사는 사제(주교와 신부)가 집전한다. 병자성사의 주요 예식은, 병자의 이마와 양 손에 성유를 바르고 병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하는 경문의 기도로 거행된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직접 고쳐 주셨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받고 파견되어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으며"(마르 6,13), 교회의 원로(사제)들에게 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14-15)

병자성사를 합당하게 받으려면 먼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고, 병자성사 후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된다. 이 때 모시는 성체를 노자(路資)성체라고 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건너가는 데 힘을 주기 때문이다. 병자성사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 몇 번이고 받을 수 있으며, 노환으로 기력이 쇠진한 노인은 병세의 위험성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쳐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다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병고에 시달리거나 임종을 앞두었을 때에는 병자성사를 받아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치유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므로 자신의 잘못을 위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병고에 시달리거나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는 물론, 다방면으로 도와주며,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계속 - CBCK 제공)

역전의 삶

오늘 복음(마태 21,28-32)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하고 이릅니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하고 대답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갑니다. 작은아들은 "가겠습니다"하고 대답하지만,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이 흥미로운 대목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벌어지는 완전한 역전 현상입니다.

두 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꿈으로써, 아버지에게 대답한 말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생각을 바꾸어 일을 하러 나갑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맏아들은 몹쓸 아들에서 좋은 아들로 바뀝니다. 반대로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기에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드렸지만, 어쩐 일인지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작은아들이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괘씸한 아들로 바뀝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뀜으로 일어난 행동의 역전은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포도밭에서 일하기 싫어했지만, 궁극적으로 일하러 나간 사람들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뉘우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들은 이제 지상에서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포도밭의 일꾼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길을 바꾸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맏아들의 경우가 행복한 인생 역전이라면, 작은아들의 경우는 불행하도 비극의 결말입니다. 포도밭에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일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비유를 듣고 있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이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하고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지키지 못하고, 변덕을 부린 사람들입니다.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지만,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오히려 뒤틀린 삶을 살아갑니다.

비유의 말씀은 어떤 이유로 두 아들에게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유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했던 맏아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따랐다는 것을 뉘우쳤고, 실천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행에 옮깁니다. 작은아들은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그것에 맞추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에게나 말과 행동의 역전이 일어나고, 그 역전에 따라 말과 행위의 총체인 삶에도 역전이 생깁니다. 비유에서 두 아들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행복을 향한 역전과 비극을 향한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두 부류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의 투영된 모습입니다. 나는 맏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김영춘 베드로 신부<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린스 남 2/4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서용숙 에스텔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린스 동 2/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10월

◈병자 영성체 : 2일(목) 오전9시30분부터

◈성 시 간 : 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P.V.구역

◈성모신심 미사 : 4일(토) 오전 8시30분

◈ 제38회 한국의 날 장터 '백삼위 음식 부스' 마지막 날

- 일시 : 오늘 주일(28일) 오전 9시~밤 10시까지.
- 장소 : LA서울국제공원(구 아드모어 팍)
- 목적 : 백삼위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금 마련
- 참가음식 : 메추리구이 외 6종
- 기금 목표액 : $25,000, 음식 바자회 티켓 판매 $10
- 오늘 봉사 담당 : 토런스 서구역 · 배론청년회 · 원서회

◈ 성모회 피정

- 일시 : 10월4일(토), 성모신심 미사 후
- 강의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대상 : 성모회, 자모회, 소공동체, 원서회, 안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미리 신청하십시오.
- 회비 : $10, 회장 오혜숙 루시아, 행사부장 김정심 크리스티나 ☎(310)490-9662. 사무실에도 신청서 비치.

◈ 디지털 카메라 사진 특강

- 일시 : 10월5일(주일) 오후 1시~2시, 회의실
- 대상 : 사진촬영에 관심이 있고, 디지털 카메라에 흥미가 있으나 자세한 작동법을 모르는 초보자, 사진을 좀 더 잘 찍기를 원하는 교우들. ☎(949)502-1213 이안드레아 홍보부장

◈수요 예비자 교리반(2009년 부활반) 모집 안내

목요 성탄반에 이어 내년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시다.

- 환 영 식 : 10월19일(주일) 11시 미사 중
- 교리시작 : 10월22일(수) 오후 8시10분, 2층 교리실
- 신 청 :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작성

◆ 주일학교(Sunday School) 소식 ◆

◈ 오픈 하우스

- 일시 : 오늘 주일(5일)
-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 : 오전 9시30분~10시30분, 강당
- 수업참관 가능 : 오전 10시45분~11시, 교실
-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2학년 첫영성체 교리반 학부모님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Lock-in

- 일시 : 10월10일(금) 오후 7시30분~11일(토) 오전 9시
- 주제 : 그리스도안에서의 변화(Transformation in Christ)
- 대상 : 7학년~12학년(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됨)
- 준비물 :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슬리핑백, * 회비 없음
- 등록 : 10월5일(주일)까지 각 담임선생님 / 성당 사무실
- Release Form 제출 필수 (자녀편에 배부)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바오로 서간'개강 안내

- 수요반 : 10월15일 오전 10시, 회의실
  금요반 : 10월17일 오전 9시30분, 강당
- * 신청 : 황지영 안젤라 ☎(310)938-8089

◈ 장례절차에 관한 세미나

- 일 시 : 10월19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문 의 : 사회복지분과 박홍룡 요셉 위원장 ☎ 283-5879

◈ 요셉회/안나회 가을 온천관광

- 때,곳 : 10월28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55명 정원,
- 회비 : 교우 $15, 외부인 $25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회장 ☎(310)518-1736
  권영옥 루치아 총무 ☎(310)720-2876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28일(주일) : 낮미사 후 장터 백삼위 음식부스에 가서 식사합시다. 성당에선 점심나누기 친교자리가 없습니다.
- 10월5일(주일) : 청소년분과 (장터국수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지혜	금영도	김병태	김성헌	김우용	김일선
김찬구	김현숙	문영일	민경근	박광자	박정순
박주현	방세훈	배태임	송재훈	안연숙	엄세종
엄정자	오명섭	오진자	오현희	우영희	육근주
이경태	이관웅	이기성	이문종	이병찬	이인석
이재용	이태옥	이현주	이호미	임연조	장영우
정열모	정훈모	조동욱	조영희	천광락	최미열
최진수	최현찬	한금순	홍주희	황인종	황지영

합계 : $7,780

미사헌금 : $3,028

성전헌금

금영도	김병태	김성헌	김우용	김일선	김찬구
김현숙	문영일	민경근	박광자	박주현	방세훈
안연숙	엄세종	엄정자	오진자	오현희	우영희
육근주	이경태	이기성	이문종	이병찬	이인석
이일길	이재용	이태옥	이현주	이호미	장영우
정열모	정훈모	조영희	천광락	최미열	최진수
최현찬	한금순	홍주희	황인종	황지영	

합계 : $6,240

감사헌금 : 이관웅, 문영일

공지 사항

◈ TV 디지틀 수신 Converter Box 무료 구입 Coupon 신청

- 기존의 아날로그 TV 수신 방식이 내년 2월부터 디지틀 수신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컨버터 박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신청서가 사무실에 비치 중이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과(310) 283-5879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가격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각 $20(사무실)

남가주 소식

◈ 제 3회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 때, 곳 : 오늘 주일(28일) 오후 3시30분, LA 대교구 주교좌 대성당(555 W. Temple St. LA. CA 90012)
- 주례 : Gabino Zavala 샌게이브리얼 지역 주교, 남가주 한인사제단 공동 집전
- 주관 : 성 마리아 엘리사벳 성당(롤랜하이츠)

◈ 작은 예수회 장애인 후원 '일일점심과 차'

- 일 시 : 10월4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메 뉴 : 갈비백반과 맛있는 다과, 1인당 $10
- 장 소 :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 ☎(213)387-3301 (1137 Arapaho St. LA, CA 90006)

◈ 성 아그네스 한인 천주교회 40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

- 일 시 : 10월12일(주일) 오전 10시
- 장 소 : 성 아그네스 성당 마당(1451 Dana St. LA, CA 90007) ☎(323)731-4433

◈ 파티마 성모님 발현 91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10월13일(월) 오후 7시
- 장 소 : LA 성 바실 성당
- 주 례 : 김재섭 요한 마리아비안네 신부
- 주 최 : 파티마 세계사도직(푸른군대) 서부평의회

◈ 루르드/파티마 성모님 발현 성지 순례

- 일 정 : 10월30일(목)~11월8일(토), 11박 12일
- 순례지 :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 경 비 : $2,795(뉴왁 공항 출발 기준)
- 주 관 : 평화신문사 ☎(718)762-6500
- 신 청 : 코리아나 여행사 ☎(718)460-9400

이번 주 단체 모임

한국의 날 장터 음식부스	오전 9시~밤 10시, LA 서울국제공원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강당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수산나 (949)679-4321 10/17(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례 스콜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42 10/10(금) 오후8시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데레사 618-8499 10/18(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현정 헬레나 543-4593 10/7(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최경숙 수산나 320-0855 10/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김파센시아 892-9651 10/15(수) 오전 10시30분
	3	강은진 젬마 214-2290	강은진 젬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715-2609 10/10(금) 오후 7시, 성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1	정정숙 율리아 365-472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최기남 야고보 569-3940 10/11(토) 오후 7시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755-4899 10/7(화) 오후 3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종두 요한 544-1267 10/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환기 라파엘라 541-3687 10/10(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이수산나 265-0495 10/16(목) 오전 10시, 성당

정하상(바오로, 1795~1839) 성인과 상재성서(上宰相書)

정하상(바오로)은 정약종(아우구스티노)과 유소사(체칠리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기도와 교리를 배워 깊은 신앙을 가졌다. 1801년 신유박해 때 부친 정약종과 친형 정철상(가롤로)이 순교하자 정하상은 7살의 나이로 누이동생 정혜(엘리사벳)와 어머니를 모시고 마재(경기도 양주군)의 큰댁으로 내려와 사학 집안이라는 눈총을 받으며 살았다. 20세 때 단신 상경하여 조증이(바르바라)의 집에 머물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였고, 교리와 학문을 철저하게 익히기 위하여 함경도에 귀양 중에 있던 조동섬(유스티노)를 찾아가 수년간 학덕을 연마했다.
1801년 신유박해 이후, 흩어진 신자들을 찾아 신앙의 열기를 북돋우면서 성직자 영입을 위해 양반의 신분을 감추고 역관의 종으로 북경까지 9회, 변문까지 3회나 왕래하였다. 1823년부터는 국내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의 일을 보면서,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북경 주교를 통하여 교황청에 보냈다.

이 청원서가 조선교구 설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1826년 조선교회를 베이징 교구에서 분리, 파리 외방전교회 산하에 새로이 조선 대리감목구를 설치하고 브뤼기에르 주교를 그 초대 감목대리(監牧代理)로 임명케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1831년 9월 9일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조선교구를 설정하고 파리 외방전교회 브뤼기에르 주교를 초대주교로 임명하였다.

정하상은 계속해서 성직자 영입에 심혈을 기울여 중국인 유방제 신부와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샤스탕 신부, 모방 신부를 비밀리에 모셨고, 1837년에는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를 모셨다. 모방 신부는 성직자 양성을 위하여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를 신학생으로 선발하였고, 정하상은 그의 지시로 1836년 12월에 이들을 마카오로 유학 보냈다.

앵베르 주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정하상에게 속성으로 철학과 신학공부를 시켰고, 신품성사를 베풀어 한국의 최초 성직자가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정하상은 순교의 영광을 얻고 말았다. 1839년 9월 22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로 순교하였는데, 온갖 고통을 강인하게 참아 나간 모범을 보여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 주었다. 얼마 후 어머니와 누이동생도 순교하였다. 자신들의 믿음을 순교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정하상이 순교 직전에 집필하여 당시 우의정 이지연을 통하여 임금에게 전달하였던 순한문 3천6백44자의 [상재상서]는 한국 최초의 호교론서(護敎論書)이며,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박해를 중단시켜야 할 이유와 주장을 밝힌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재상서]는 1881년 홍콩 교구에서 책으로 발간되어 중국에서도 교리서로 사용되는 등 선교에 널리 활용되었다.

피를 쏟는 형벌에도 태연자약하였고,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으로 가면서도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녔다고 하니 신앙을 생활화한 산 표본이며, 모든 평신도가 닮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라 하겠다. 1925년 7월 5일, 그 어머니 유소사(체칠리아)와 누이동생 정혜(엘리사벳)과 함께 교황 삐오 11세에 의해 시복(諡福)되고,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시성(諡聖)되어 한국 103위 순교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 사람이 이 세상에 삶이 그 터럭 끝만 한 것이라도 모두 천주의 힘입니다. 내시고 기르시고 도우시고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은 후 받은 상을 구태여 말할 것 없이, 당장 받고 있는 은혜가 이미 극도에 이르러 비할 데가 없으니, 우리가 일신을 다하여 그를 받들어 섬긴들 그 만분의 일을 보답한다 하겠습니까? 받들어 섬기는 길은 고상하여 실행이 어려운 일도 아니요, 은밀한 일을 들추며 기괴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잘못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져 천주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상재상서 중에서]◆